

구제역 진정 국면... 조기종식을 위한 총력 대응

백신항체 검사 미달 농가 과태료 부과



전국적으로 백신접종이 완료되고 충북 보은과 경기도 연천에 대한 집중적인 차단방역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난 2월 20일 이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 진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소에 대한 백신 일제접종과 구제역 발생 시·군 인접지역 돼지 일제 접종에 따른 항체형성 시기를 고려하며 구제역 확산 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위기경보 심각단계를 유지하면서 구제역·A형 중양사고수습본부(본부장: 농식품부 장관)를 중심으로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상시 대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초기 단계 구제역 전파 방지, 타 지역으로 확산 방지, 일제 접종에 따른 항체형성 시기를 고려하여, 발생지역인 경기·충북·전북에서 우제류 가축(소·돼지·사슴·염소 등)의 타시·도로 반출 금지기간을 2월 26일까지 연장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였다.

또한 구제역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전국 항체형성률 모니터링을 2월 27일부터 시도별로 실시하고 있다. 백신 접종 관련 항체형성 검사 결과, 기준치에 미달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추가접종 및 재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경 검역 강화를 위해 구제역·A형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방문한 축산관계자는 출·입국 공항·만 등에서 소독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살처분보상금과 관련해 현재까지 보상금 지원 규모는 구제역 21농가에 56억 원으로 추정되며 보상 평가를 신속히 완료 하되, 감액 기준을 철저히 적용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㉞

〈구제역 발생 현황〉

발생	2.5일, 2.6일, 2.8일, 2.9일, 2.11일, 2.12일, 2.13일(젖소 2개 농장, 한우 7개 농장)
살처분 현황	21개 농장/1,425두(예방적 살처분 12농장 712두 포함) - 충북 보은(혈청형 O형) 젖소농가 3호 328두, 육우농가 1호 29두, 한우농가 10호 629두 - 전북 정읍(혈청형 O형) 한우농가 6호 339두 - 경기 연천(혈청형 A형) 젖소농가 1호 100두